No. 17 위험 관리 읽는 시간 5분

주가가 50% 떨어지면 본전까지 몇 % 올라야 할까?

주가가 50% 내려가면 본전까지는 50%가 아니라 100%가 올라야 합니다. 가상의 숫자로 하락률별 필요 상승률과 회복 기간, 비중에 따른 손실 폭을 계산해 봅니다.

한 줄 결론

하락률이 커질수록 본전에 필요한 상승률은 더 빠르게 커지므로, 얼마나 오를지보다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좋음

확인할 숫자

하락률, 필요 상승률, 한 종목의 비중, 회복에 걸리는 기간



사진: 비 오는 날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사람들, jjsimoniv1, Flickr.

목차

1. 10,000원이 5,000원이 되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일까?
2. 하락률이 커질수록 필요한 상승률은 왜 더 빨리 커질까?
3. 같은 50%인데 올랐다 내렸다 하면 왜 본전이 아닐까?
4. 본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
5. 깊은 하락을 막으려면 무엇을 먼저 정해 둘까?
6. 반토막 앞에서 던질 다섯 가지 질문

> 이 글의 가격과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 권유나 주가 예측이 아닙니다.

보유 종목이 반토막 났을 때 "절반만 오르면 본전"이라고 생각한 적, 있을 겁니다. 계산해 보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.

그렇다면 주가가 50% 떨어졌을 때 본전까지는 몇 % 올라야 할까요? 가상의 숫자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

01

10,000원이 5,000원이 되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일까?

가상의 주식 A가 10,000원에서 5,000원으로 50%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. 본전은 10,000원이니 5,000원을 더 올라야 합니다.

그런데 올라야 할 5,000원의 기준은 원래 가격 10,000원이 아닙니다. 지금 가격 5,000원입니다. 5,000원에서 5,000원이 오르면 100%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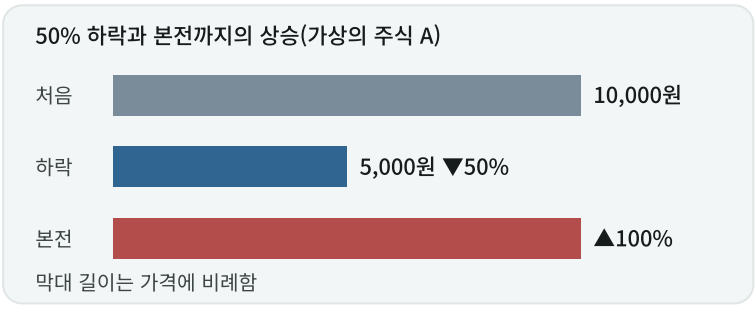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가상 예시. 50% 하락에서 본전까지는 100% 상승이 필요함.

이처럼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는 기준 가격이 다릅니다. 이 차이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.

02

하락률이 커질수록 필요한 상승률은 왜 더 빨리 커질까?

계산식은 간단합니다. 필요한 상승률은 하락률을 (1 – 하락률)로 나눈 값입니다. 하락률이 0.5라면 0.5 ÷ 0.5로 1, 곧 100%입니다.

이 식으로 하락률별 필요 상승률을 구해 보겠습니다. 10% 하락은 11.1%, 20%는 25%, 30%는 42.9%입니다. 50%는 100%, 70%는 233.3%가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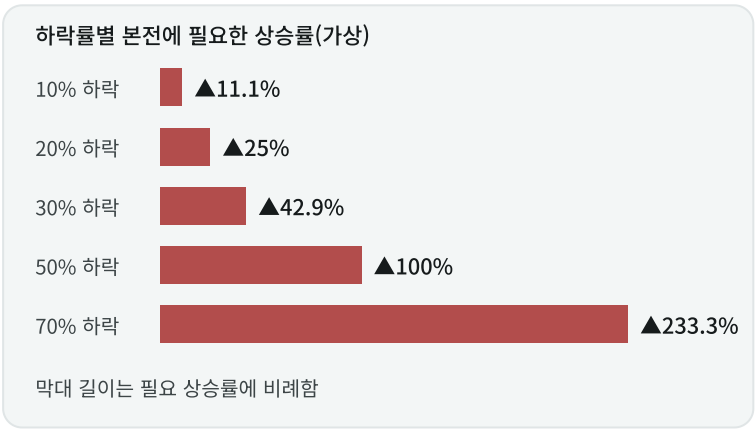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가상 예시. 하락률이 2배가 되면 필요 상승률은 2배보다 훨씬 크게 늘어남.

하락률이 80%면 400%, 90%면 900%가 올라야 합니다. 10% 하락은 비교적 가볍게 회복되지만 깊은 하락은 사실상 다른 문제입니다.

03

같은 50%인데 올랐다 내렸다 하면 왜 본전이 아닐까?

50% 내렸으니 50% 오르면 된다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 5,000원에서 50%가 오르면 2,500원이 더해져 7,500원입니다. 본전 10,000원에는 한참 모자랍니다.



사진: 눈이 덮인 숲속 오르막 길, The Fun Chronicles, Flickr.

반대로 올랐다가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10,000원이 50% 올라 15,000원이 되고 다시 50% 내리면 7,500원입니다. 오르고 내린 퍼센트가 같아도 원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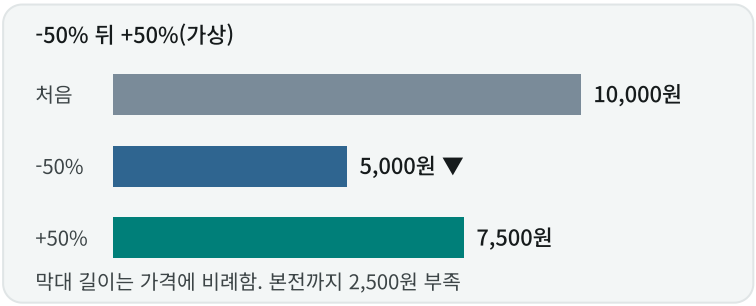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가상 예시. 50% 하락 뒤 50% 상승으로는 본전의 75%까지만 돌아옴.

이처럼 하락과 상승의 퍼센트는 대칭이 아닙니다. 수익률을 곱해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

04

본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

필요한 상승률을 알았으니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매년 5%씩 꾸준히 오른다고 가정합니다. 실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 계산을 쉽게 하려는 가정입니다.

20% 하락은 1.25배가 되어야 본전입니다. 1.05를 5번 곱하면 약 1.276이므로 5년이 걸립니다. 30% 하락은 약 1.429배가 필요한데 7년에 1.407배, 8년에 1.478배라서 8년입니다. 50% 하락은 14년에 1.980배, 15년에 2.079배라서 15년입니다.



사진: 언덕 정상으로 이어지는 흙길, Horia Varlan, Flick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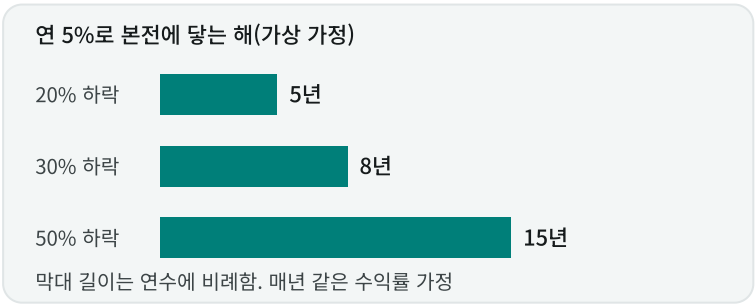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가상 예시. 하락이 깊을수록 회복 기간이 빠르게 길어짐. 실제 주가가 회복한다는 보장은 없음.

15년은 직장인이 한 종목을 들고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입니다. 그 사이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이 묶입니다.

05

깊은 하락을 막으려면 무엇을 먼저 정해 둘까?

하락 뒤의 계산이 이렇게 불리하다면, 깊은 하락을 처음부터 작게 만드는 쪽이 낫습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종목의 비중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.

총자산 1,000만 원에서 어느 한 종목이 50%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. 그 종목이 200만 원(20%)이었다면 100만 원이 줄어 전체 자산은 900만 원입니다. 500만 원(50%)이었다면 250만 원이 줄어 750만 원입니다. 전부(100%)였다면 500만 원이 줄어 500만 원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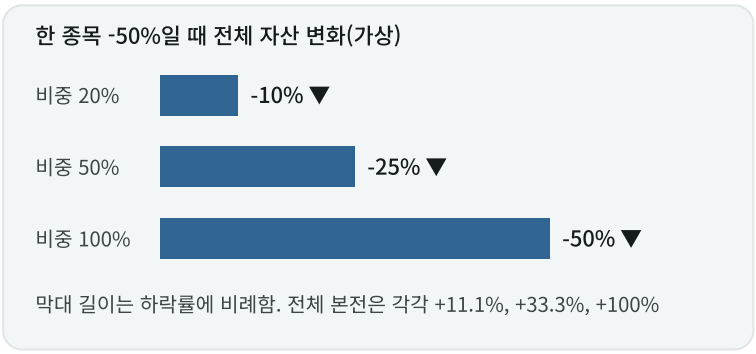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가상 예시. 한 종목의 비중이 작을수록 전체 자산의 하락과 필요 상승률이 크게 줄어듦.

비중 20%일 때 전체 본전은 900만 원에서 1,000만 원이 되는 11.1%면 충분합니다. 같은 50% 하락인데 회복 부담이 9분의 1로 줄어듭니다.

06

반토막 앞에서 던질 다섯 가지 질문

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보유 종목이 크게 내렸을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**"50% 떨어지면 50%만 올라도 본전인가?"**
   → 아닙니다. 기준 가격이 5,000원으로 내려가서 100%가 올라야 합니다.

2. **"하락률과 필요 상승률은 어떤 관계인가?"**
   → 필요 상승률은 하락률 ÷ (1 − 하락률)입니다. 70%면 233.3%, 90%면 900%입니다.

3. **"올랐다 내리면 같은 퍼센트로 원금이 되는가?"**
   → 아닙니다. 10,000원이 +50%, -50%를 거치면 7,500원입니다.

4. **"본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?"**
   → 연 5% 가정에서 20% 하락은 5년, 50% 하락은 15년입니다. 실제 회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

5. **"무엇을 먼저 정해 두는가?"**
   → 한 종목의 비중입니다. 20%면 같은 50% 하락도 전체로는 10%입니다.

이처럼 반토막의 진짜 무게는 50%가 아니라 100%입니다. 오늘은 보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을 골라, 그 종목이 50% 내리면 내 전체 자산이 몇 %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[담당자 검토]

참고 자료

- 글에 쓴 주식 A와 모든 가격·비중·수익률은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종목 자료가 아님
- 필요 상승률 = 하락률 ÷ (1 − 하락률): 위 가상 숫자로 직접 계산한 값
- 회복 기간은 매년 5% 상승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주가 예측이 아님

분류·태그 위험 관리 #손실 회복 #수익률 계산 #위험관리

온라인 원문: https://www.stock-diary.kr/p/2026-11-15-auto-1500.html

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(생성형 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.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「참고 자료」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,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, 출처는 본문 캡션과 「참고 자료」에 밝혔습니다. [담당자 검토]